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하나님 제목 :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성경: 로마서 9장
19-29절 (하나님, 정의, 신정론, 선악, 신약성경, 로마서)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 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들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보다 함과 같으니라 (롬9:19-29)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경찰에게 잡히게 되고, 검사는 우리를 고소할 것이며 판사는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건강을 방치하면 우리는 병에 걸릴 것이며, 여전히 방치하면 우리는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딱 한번만 나쁜짓을 하고 이후로는 결코 나쁜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악을 행한다면 그는 딱 한번의 악행으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결코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그 악행으로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딱 한번의 악행이라도 결코 모른체하지 않으시며 전 인류의 생사화복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행하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다.

문제는 사람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자기 주관적이고,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합리화와 변명, 또는 어쩔 수 없음, 억울함 등을 내세워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선악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변명따위는 통하지 않는다. 변명은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변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변명보다는 회개가 통한다. 겸손한 태도가 통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용감하고 떳떳하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 소망을 도우신다.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말씀에 대한 변증법적 자문이다. 하나님께서 강박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왕을 허물하시는가? 왜 그가 잘못했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바로가 온유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20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로왕은 수많은 세월동안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서 통치수단으로 삼아왔으며, 피라미드 건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였던 자이고, 대대로 그렇게 해 왔던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수백번 강박하게 하실만한 정당성은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정당하지 않다고 반문할 수 있느냐는 뜻이다. 얼마든지 주권자의 판단과 그 계획대로 세상을 치리하신다는 뜻이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은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인권의 요구자가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의 요구자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녀처럼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녀가 아버지가 아닌 자를 아버지라, 주인이 아닌자를 주인이라 여기고 스스로 아버지의 편에서 떠나 원수의 편에 선다면 그는 갑절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 토기장이가 그 용도대로 그릇을 만든다.
- 사람도 그 용도에 따라 적당하게 만든다. 물론 귀히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댓가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조상들이 힘써 애써 쌓아놓은 부라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탕진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큰 부자가 되기도 한다. (겔스데이 헤리는 애교로 땀-진짜사나이)

-세상에는 수많은 에피소드들로 가득하다.

-그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물론 자신이 어떤 그릇이며, 노력하면 어떤 그릇까지 가능하게 되며, 현재는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든 경우에 통하는 태도는 역시 겸손이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며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자신에게 복이다.

-그렇다면 별 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처지를 비판하면서 서러움과 원망과 울분속에 살아가는 것이 비굴이고 교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어떤 정의를 요구하시는지를 가늠해 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계명을 철저히 지키기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유지하기를 요구하시는지, 자신의 처지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퓨리라는 영화를 통해서, 충성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정의는 더 잘 지켜진다.

(퓨리;브래드 피트, 신병 노먼)

-물론 나는 얼마든지 위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위치를 지키면서 본분을 다할 수 있다. 어디에 가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다.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